

종조 탄신 118주년 종령 법어

창종정신 되살려 새로운 도약



종령 지성 대종사

오늘은 정통밀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께서 탄신하신지 1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고려 시대 이후 자취를 감췄던 밀교 종단의 맥을 잇는 한국 정통 밀교의 중흥조이자, 대승불교의 연장선상에 수승한 최상승 밀교가 있음을 만천하에 천명하신 분입니다. 특히 생활 불교를 표방하시어 불교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 한국 불교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정 대성사님의 탄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총지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역사와 오늘의 우리는 원정 대성사님의 뜻에 인연한 것이며, 미래는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을 본받아 더욱 정진해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원정 대성사님께서 열화와 같은 추진력과 굳건한 신심으로 새로운 종단 창종을 이끌어 낸 것처럼 오늘 종조 탄신일을 맞이하여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을 본받아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종단 화합과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승단의 화합은 승단의 생명입니다. 승단과 교도 전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교화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승단의 발전은 개개인의 수행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수행자는 항상 자신을 둘러보는 자세와 흐트러짐이 없는 계행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총지종의 종도들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스승과 교도가 화합 단결, 하나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8주년 종조 탄신일을 맞이하여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총지중이 길이 융창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한한 복덕이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총기 54년 1월 29일
종령 지성 합장

“가치혼란 시대,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자”

종조 원정 대성사 제118주년 탄신대재 봉행



불교총지중 종조 원정 대성사의 제118주년 탄신대재가 1월 24일 오후 2시 본산 원정 기념관과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탄신일은 1월 29일이나, 설날 연휴로 인해 며칠 앞당겨 엄수됐다.

본산 법회에는 종령 지성 예하와 통리원장 목경 정사를 비롯한 서울경인교구 스승과 유가족, 교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종령 지성 예하는 법어를 통해 “총지종의

지난 역사와 오늘의 우리는 원정 대성사님의 뜻에 인연한 것이며, 미래는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을 본받아 더욱 정진해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달려 있다.”고 설교하고, “총지종의 종도들은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잠시라도 잊지 말자.”고 유시했다.

봉행사에서 통리원장 목경 정사는 “원정

대성사님의 큰 뜻을 우리 제자들이 십분의 일도 따르지 못한 것 같아 늘 부끄럽다.”며, “종조님께서 제창하신 재생의세의 정신으로 총지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 30여 사원에서도 대재를 올리고 대성사의 탄생과 행장을 소개하며 밀교의 법을 몸으로 체득하고, 불공의 길을 열어 펼친 대성사의 생전 가르침을 가슴에 되새겼다.

교화 발전의 꽃 시각화 지수 입적

1월 26일, 불생불멸의 연화장세계로



“평생 교화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만족하며, 후배 스승님들은 중생의 행복을 위해 전심전력하길 바란다.”는 퇴임사를 남기고 2007년도 기로진원에 든 시각화 지수가 지난달 26일 법랍 50세, 세수 88세로 불생불멸의 연화장세계로 들었다.

불교총지중 창종 이듬해인 1973년 5월 16일 밀양선교부 초대 주교로 부임하여 밀행사를 일궜다. 부산 범심사 전신인 자재서원당과 덕화사의 초대 주교로서 부산 지역에 정통밀교의 씨앗을 심고, 국광사, 정각사 주교로서 한평생 밀법 전수와 교화 발전에 꽃을 피웠다.

현 수인사 주교 범상 정사와 밀행사 주교 금강륜 전수의 모친이자 스승이었던 시각화 지수는 퇴임 전인 2005년도 전법관정수계에서는 걸계 아사리로 현직 스승들의 큰 스승이자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빈소가 마련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스승들과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7일 합동불공이 봉행됐으며, 28일 다비식을 거친 법구는 경남 밀양, 부군이자 불교총지중 제7대 통리원장을 지낸 하정 종사의 곁에 모셔졌다.

종/조/법/어

인간은 불완전하다. 복도 불완전하고 지혜도 불완전하다. 부처님만은 완전한 까닭으로 사람이 귀의하느니라.

지 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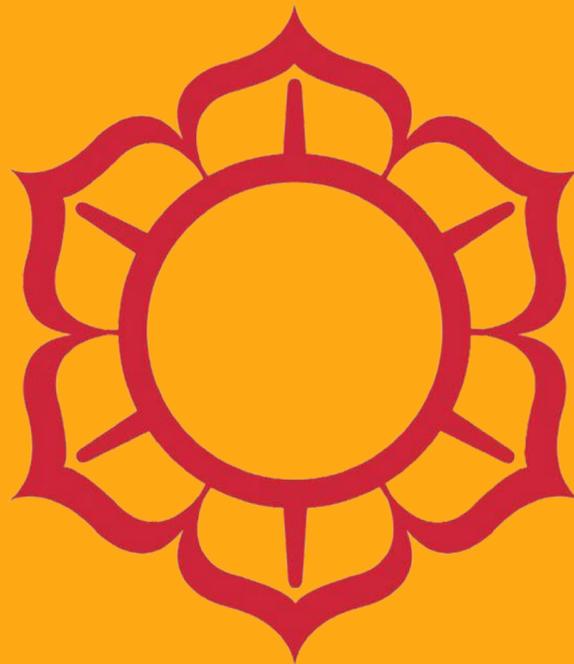
- 2면 신년하례법회 및 기로진원식 / 제21대 통리원장 취임식
- 6면 기획연재 -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39화>
- 10면 남해 정사의 위드다르마 - 인도성지순례기 ②

총기 54년 상반기 49일 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4년 2월 19일(수) ~ 4월 8일(화)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신년하례법회...정원심·유가해 전수 기로진원

1월 16일 본산 총지사, 제21대 통리원장 이·취임식도 함께



총기 54년 을사년 신년하례법회 및 기로진원식이 지난 1월 16일 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됐다. 또 신년하례를 겸해 제21대 통리원장 이·취임식 법회도 이어졌다. 종령 지성 예하를 비롯한 전국 사원 스승과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법회는 상견 하례인사로 새해 중단 발전과 화합을 발원하고, 서원사항으로 총지종 교세 발전과 기로진원 스승 복지원만을 서원했다.

종령 지성 예하는 “새해 서원당에 모인 스승들의 모습이 밝아 보여 더없이 반갑다.”며 “오늘 법석을 계기로 총지종이 무한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또 이날 퇴임하는 정원심 전수에게 기로가사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유가해 전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불참했다.

정원심 전수는 “부처님 법만 보고 달려왔더니 어느새 세수 70을 넘겼다. 부처님 법과 스승, 도반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다. 법과 스승, 도반을 의지하고 부처님 법을 행한 덕분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제21대 통리원장 이·취임식 법회가 봉행됐다. 통리원장 특경 정사는 취임 일성으로 교화 발전을 기반으로 불교총지종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수개극행(守改克行)’을 덕목으로 삼아 중무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전임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전 종도의 지원으로 원만하게 임기를 마치며, 20대 집행부가 못다 한 일을 신임 통리원장에게 그 짐을 넘긴다.”며, “제21대 집행부의 발원이 모두 원만성취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열반에 든 법계월 전수의 유지를 받들어 유족 대표인 안정에 교도가 중단 발전 기금 5천만 원을 희사했다. 총지사=박재원 기자

1. 종령 예하와 통리원장으로부터 기로가사와 사령장 받는 정원심 전수
2. 법계월 전수님의 유지로 유족 대표 안정에 교도가 중단 발전 기금을 희사했다.
3. 마니합창단의 축하 음성공양을 참석 교도가 합창으로 받고 있다.

통리원장 취임사

수개극행(守改克行)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못 존재들을 위해 깨달음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역사적 사명은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힘이 됩니다. 불교총지종의 발자취 또한 부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깨달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한국민교의 불을 다시 밝히신 종조 원정 대성사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여러 인연들로 빚어진 총지종의 만다라 세계 속에서 종령 예하를 위시한 스승님들의 수행정진력과 전 교도들의 무진서원이 오늘날 총지종의 근간이 되었으며, 또한 한국불교계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선배 제현들의 노고와 원력의 화신인 사부대중에게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종단은 어느덧 창종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백 년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21대 통리원은 종단 반세기라는 역사의 반석 위에 교화 발전이라는 주춧돌을 놓는다는 각오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지키고, 고치며, 극복하고, 실천한다’, 지킬 수(守), 고칠 개(改), 이길 극(克), 행할 행(行) 즉, ‘수개극행(守改克行)’을 덕목으로 삼아 중무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선대 스승들과 역대 전임자들의 뜻과 기본 정신에 충실하여 추진 중인 업무는 더욱 견고하게 유지·발전시키고, 새로운

사업은 가르침과 교화 발전에 부합하는지 살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면 승단과 교도들과 마음을 모아 이겨내며,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승속의 구분 없이 수행하고 자리타의 대승 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온 불교총지종의 회고와 성찰은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시대의 가치를 불교적 가치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아울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중무행정 개선을 통해 시대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대승적 차원에서 불교 종단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중생과 함께하는 일상의 삶 속으로, 사회 속으로 더욱 스며들 수 있도록 ‘수개극행(守改克行)’ 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불모지에 첫발을 내디딘 이가 있었기에 그 걸음을 따라 길이 생기는 법입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문을 열어 만든 길을 따라 불법이 생활 속에 담기고, 생활이 불법과 다르지 않은 수행의 길로 통하게 된 것입니다. 제21대 통리원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첫발을 기억하고, 그 길 위의 시간을 되새기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화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성도합시다.

총기 54년 1월 16일
통리원장 특경 합장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마음의 치유로 평안을, 국민 화합으로 희망을’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조계사 대웅전서 봉행



한국불교 지도자들이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 2569년 한국불교 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마음의 치유로 평안을, 국민 화합으로 희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통리원장 목경 정사와 총무부장 덕광 정사를 비롯한 한국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과 수석 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차석 부회장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부회장 관

음종 총무원장 범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등 주요 종단 대표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 목경 정사는 불교계를 대표해 꽃 공양을 올렸다. 이와 함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현승 국회 정각회 회장을 비롯한 불자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포교신행단체장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안 등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극복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또 모든 국민이 평화로우며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 없이 정진할 것을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이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지도자들은 대학생 불자 장학금 1,000만 원을 유주연 한국 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에게 전달했다.



새해 맞아 종단 통리원 예방

종단협 사무총장 진호 스님
BBS불교방송 서진영 사장

새해를 맞아 교계 인사들의 종단 예방이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사무총장 진호 스님은 양정철 차장과 함께 지난달 14일 통리원을 찾아 통리원장 목경 정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눴다.(사진 위) 이 자리에서 목경 정사는 부회장 종단으로서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종단협 발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 15일에는 새로 취임한 BBS불교방송 서진영 사장이 고병수 비서팀장, 박광열 실장, 이현구 보도국장을 대동하고 BBS불교방송 이사 종단인 총지종 본산 통리원을 방문했다. 목경 정사는 “포교 방송은 물론 임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조언했으며, 참석자들은 서 사장으로부터 BBS불교방송 상황과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새해 덕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아래 왼쪽부터 고병수 비서팀장, 재무부장 법선, 총무부장 덕광, 통리원장 목경 정사, BBS 서진영 사장, 박광열 실장, 이현구 보도국장)



지혜의는 리버티와 프리덤

독립 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 교육 쇄국정책에서 통상수교거부정책으로

영어의 두 단어 ‘Liberty(리버티)’와 ‘Freedom(프리덤)’은 모두 ‘자유(自由)’로 번역됩니다. 이 두 단어는 엄격하지 않지만 구분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버티가 ‘~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라면, 프리덤은 ‘~에의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입니다.

영국의 ‘권리장전(權利章典)’은 1689년 12월 16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영국 의회가 명예혁명으로 윌리엄 3세를 추대하면서 ‘권리장전’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권리”가 원문에서 “civil liberties such as freedom of assembly and freedom of the pres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 자크 루소(1712~1776)의 ‘사회계약론’에서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군림하는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자유를 가진다.”라고 한 것처럼, 명예혁명은 귀족정치에서 민주정치로 전환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리버티’는 이처럼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얻어진 구체적인 법적 자유를 가리킵니다. ‘리버티’는 법에 따른 물리적 제제가 있어야 가능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 이후에는 많은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국가의 통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의 자유는 개인적인 자유, 즉 ‘프리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것이지요.

‘타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한’ 무제한의 자유는 금지항목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인 ‘네거티브 리스팅(negative listing)’ 방식이라면, 나이 든 세대는 허용되는 것만 자유인 ‘포지티브 리스팅(positive listing)’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세대들은 누

려보지 못한 자유를 얻기 위해 행동했다면, 최근 계엄 이후 젊은 세대들은 누리고 있던 자유가 박탈되는 것에 반발하여 행동하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의 역사교육에서 근현대사를 분리해 근대 이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립·발전해 왔는지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던 점도 의미 있게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든 세대들은 흥선 대원군의 대외정책을 쇄국정책(鎖國政策)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쇄국정책 대신에 ‘통상수교거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군대를 앞세워 통상 수교를 강제한 것에 대해 흥선 대원군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침략을 물리쳤다는 관점이 반영된 용어입니다. 쇄국정책과 통상수교거부정책은 그 간극이 매우 큽니다.

나이 든 세대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 든 세대의 지식은 ‘이미’ 낡았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구성원을 개인적으로 거칠게 나눠본다면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시기를 1987년 6월 항쟁을 분기점으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구분의 근거로 자유에 대한 수용과 한국 근현대사 대한 인식의 변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먼저 6월 항쟁 이전에 성장한 세대들은 국가가 가하는 통제 내지는 억압에 저항하였다면, 이후에 태어나 성장한 세대들은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소극적 자유, 후자는 적극적 자유와 연결되지 않을까요?

칼럼니스트 김태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보리수 108염주	편백염주 108염주	편보리수 108염주
₩ 50,000	₩ 40,000	₩ 10,000	₩ 29,000	₩ 3,000	₩ 40,000	₩ 15,000	₩ 40,00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설집』

“피안과 극락은 자기 마음에 있다”

제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3절 각종 논설

4. 인간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인간성을 잃고 향락적, 타락적 생활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 과도한 향락은 타락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 시대만큼 인간성이 요구되는 시대도 없으며, 따라서 그 가치도 높아진다. 이것은 곧 종교활동과 종교적 신앙생활에서 인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저마다 선을 주장하지만, 마음속에 자기 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한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진실한 선이란 다만 봉공이다. 이타에 있는 것이다. 즉 소아를 떠나 대아에 봉사해야 한다.

인간 지식의 확대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인간과 이기주의적으로 각축 경쟁하는 마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식이 악용되어서는 그 지식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을 평화로운 인간, 영락의 인간으로 고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는 지식 그것보다도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고 적어도 인간성과 지식을 병진시켜야 한다. (중략)

인간은 목석이나 금수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식구조의 탁월성이니 바로 잘잘못을 아는 의식의 주인공이다. 이것은 곧 가치판단으로 확대되어 의식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화되어 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선악의 판단은 결코 전통적인 교육의 결과로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그것을 알 만큼 판단의 가능성을 그 의식 기능 속에 지니고 태어난다. 단적으로 인간은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인간의 기본적이며 동시에 최대의 특유성인 참회하는 마음이다. 금수는 참회하는 눈물이 없다.

이 참회 없이 교육을 통한 지식만 있는 자는 그 지식을 악용하여 자기의 죄과를 합리화하려 들고, 선을 가장한 위선에 기교를 부리기에 힘쓰며 진정한 선을 부정하려 든다. 그러므로 인간이 된 연후에 지식을 가져야 그 지식이 자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선후본말의 원리인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본질적으로 선하기만 한, 결정되고 완료된 존재가 아니다. 부처님도 어떤 사람을 그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고정된 운명에 결박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쉽고 어려운 구별은 있을망정 인간에게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형성할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 보살도 되고 성불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생활과 교조를 원만하고 정당하게 결부시켜야만 생활불교가 되는 것이다. 교조를 위주로 한다면 생활은 교조의 노예가 될 것이요, 생활을 위주로 한다면 교조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 둘을 반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불설, 그것은 곧 인간 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이며 그에 입각한 생활은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내세와 피안을 하나의 실재하는 제2의 세계라고 볼 때 흔히 현실적 생활을 등한시하는 현실도피적 인간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많다. 그 반면 내세나 피안을 부정하는 반종교적 인간에게는 현실지상으로 현실적 해결에만 급급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적 위험성도 다분히 있다. 우리는 인간의 현실 속에는 이미 피안성이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의 심층에는 내세와 피안의 심층이 있다. 피안과 극락이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피안은 인간 의식 속의 영원이며 차안은 인간 의식 속의 시간이다. 영원에 사느냐 시간에 사느냐가 문제다.

(이하 생략)

인간이 본래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의 문제는 철학과 종교의 근원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굳이 철학자나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궁극해될 때가 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천인공노할 범죄자뿐 아니라 가까이에서 아주 무례하고 뻔뻔한 사람 때문에 고생할 때면 사람의 본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된다. 남 이야기할 것 없이 자신을 돌아봐도 늘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말이니 성선설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부처가 될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 모든 존재는 독립된 고정불변의 자성이 없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아와 무상의 이치에서 봤을 때 불성 또한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그 무엇도 아니다. 그러니 선사들이 이야기하듯이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다.

욕심 사납고 어리석은 중생에 머물지, 번뇌 망상을 여윈 부처로 나아갈지, 그것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스스로 찾고 싹 틔우면 불성은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어디 있고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세속적 욕망만을 추구하면 불성은 없는 것이다. 물론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무엇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불성 또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것이다.

실사 부처님이라 해도 중생의 업을 바꿔줄 수 없고 모두 구제해 줄 수도 없다고 했다. 구원자는 없다. 업과 과보는 온전히 자기 몫이며 이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도 본인뿐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도 자신을 성찰하는 인지능력과 자각 능력이 있으며 삶을 만들어가는 의지와 힘이 있다. 성찰의 핵심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참회로, 발심과 서원으로, 보시와 동사업으로 불성은 발현된다.

얕과 행의 관계 또한 근본적인 화두이다. 새의 두 날개처럼 상호보완하는 동시적인 관계이지만 자주 빼겨거리고 틀어진다.

국내외 우수한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소위 엘리트나 사회도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알량한 지식과 학벌로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목도한다. 그에 반해 크게 배운 것 없는 촌로와 평범한 이웃에게서 웅숭깊은 지혜와 참된 인품을 훨씬 자주 만난다.

젊은 시절 불교 동아리와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뜬구름 잡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깨달음이라도 얻은 양 사변을

늘어놓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듯 무시하곤 했다. 불교계에서 일하면 서도 어쭙잡은 사람들을 꽤 만났다. 불교 교리를 좀 안다고 여짜나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는지,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다가도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달아나겠다 싶을 정도다.

입차문래 막존지해(入此門來 莫存知解), 이 문 안에 들어올 때는 알음알이를 내려놓으라 했다. 아는 것이 이기적으로 쓰이거나 자기 합리화로 치닫거나 고집과 아집으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다.

근본 마음자리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 지식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되고 소가 마신 물은 우유가 된다고 비유하셨다.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부처님의 말씀조차 잘못 쓰일 수 있다.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가르침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스스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은 반야 지혜가 되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지위와 자산을 독점하고 강화하는 무기가 되었다. 탈종교화의 흐름도 거세다. 젊은 세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가식적이고 집단이기주의화 된 종교의 모습에 거부감도 크다.

그럼에도 불교가 대안이다. 물질과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마음속 고뇌와 번뇌는 쉬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인의 번민은 훨씬 복잡하고 심층적이다. 이것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불교철학과 불교수행에 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길이 불교에 있다고 믿는다. 인간을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 불교에 있다고 굳게 믿는다.

해탈 열반과 성불이라고 하는 불교의 이상은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세와 피안을 부정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내세와 피안이 어딘가에 실재한다고 여기지도 말라 하신 원정 대성사님의 말씀은 중요하다.

현실에 매몰돼 세속적인 욕망에 치우치는 폐해와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어서 사실은 무기력하고 쓸모없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피안과 극락이 마음에 있으니 보살 수행자가 되어 성불의 길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본다.

윤금선 BBS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구성작가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왕생법문

억울함을 가슴속에 두지 말라

세상의 온갖 풍파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중생의 삶이란 늘 화창한 날들같이 밝고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맑은 날들보다 바람 불고 흠뻑 비 오고 눈 내리고 흐린 날들이 더 많듯이 우리네 삶에도 짜증 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화낼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참기 어려운 일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자신이 모함을 당하거나 취급당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도 없이 오해를 받고 온갖 함정에 빠져 아무리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도, 그 뒷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생트집을 잡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하였는데 혼자만 잘못을 뒤집어줄 때나, 믿고 주고 받았는데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상관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내키지 않은 일을 마치못해 하였는데 혼자서 문책을 당할 때 등등 억울함이 사무치면 화병을 부르고 그 화병을 풀지 않고 죽으면 원한이 맺혀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되어 생을 바꾸더라도 그 원결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함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입니다.

마음에 맺힌 원결이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남에게 원한에 사무칠 만큼 큰 어려움이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풀어지지 않는 원한은 생을 바꾸어서라도 꼭 풀게 마련이므로 남에게 원결을 쌓아서 결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한을 가지고 기어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그 원한의 관계는 결코 풀어지지 않고 세세생생에 원수가 되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
우리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얼마든지 바꾸고 전환할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

그 원한의 관계를 푸는 길은 자비로운 용서 뿐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억울함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당하면 가능하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자리를 떠나 여행하거나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밝히려 하다가 보면 다시 시비가 일고, 그 시비는 분노와 증오와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 원망하는 마음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초라도 빨리 생각도 몸도 그 자리에서 떠나 버리는 것이 상책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불교의 원리적 이상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와 중생의 괴로움을 제거하는 '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비정신은 악을 악이라 배격하고 벌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위에 부딪쳐도 끝없이 작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도 본래 실체가 없어서 선의 결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며, 나아가 어떤 악인도 진여에서 나온 여러장을 지니고 있어서 부처님과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동체대비가 불교의 근본 사상인 연기관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비가 기독교의



종교적 이상인 사랑과 다른 점은 어떤 경우에도 중생을 버리는 일이 없고 따라서 증오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해도 이를 끝내 거역하고 배반하였을 때는 죽음이 라는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판이라는 조건이 붙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조물주를 전제하는 이상 불가피한 일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와 인생의 모든 것을 인과와 연기의 전제로 보며, 인과를 벗어난 우연론이나 전지전능한 창조주에 의한 창조론은 모두 이단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든 우연히 생겨난 세계라거나, 또 전지전능한 신이 이 우주의 생명체를 창조했다면 이 세계는 모순으로 가득 채워지고 약육강식의 대혼란 속에서 암흑과 죄악만이 판을 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신비는 오직 불교의 육도윤회

회를 통해 무시이래로 인과법, 연기법으로 풀지 않고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인과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숙명론이나 운명론과 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보면 모든 것은 태어날 때 사주팔자와 함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와 창조적인 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인과론과 전혀 다릅니다.

불교의 인과론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현재와 같은 삶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이 결과는 어제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고, 오늘 내가 짓는 행위는 내일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인과론은 내일을 창조하고 오늘의 과오와 고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

한 인과론이기 때문에 숙명적인 운명론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하는 세속적, 현실적 법의 태도입니다. 대부분 중생의 생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세세생생 원수가 되어 윤회의 고뇌를 끊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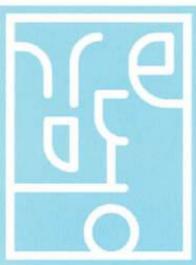
결국 나도 남도 함께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왕삼매론』은 서로가 죽이는 삶이 아니라 연기론적 자비관으로 서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얼음과 눈은 훈훈한 봄바람이 아니면 녹일 수 없듯이, 자비가 아니고서는 중생의 무명업장을 녹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차원에 이르면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남을 비방하고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인욕바라미를 수행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흔히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고통이 심하던 말인가'하고 탄식하는데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그 잘못의 원인을 돌리는 정신입니다. 대부분의 억울함은 나에게서는 잘못이 없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실컷 잘해 주었더니 돌아오는 것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거꾸로 생각해 보고, 자존심이 깊이 상하게 됩니다. 혹 아직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로 삶을 보내고 있다면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의 원망과 원통함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비판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얼마든지 바꾸고 전환할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원한, 원망, 억울함 따위는 먼지 털듯이 바람에 휘둘려 날려 보내고,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에 던져 버립시다.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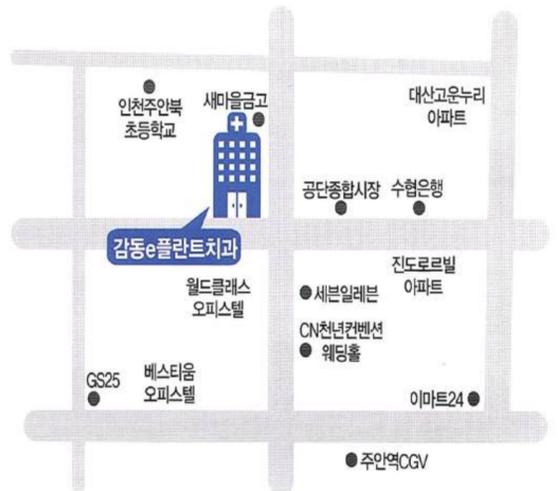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2 **4,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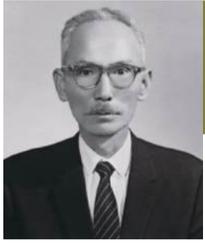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들니 |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옴마니반메흠을 송하고 염하는 것은 행하기 위한 마음 훈련”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39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수 74세)

서원당뿐 아니라 현재 모든 곳이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없으니 어디서나 보리를 구하고 공덕을 모으며 지혜를 다해 대정진에 나서 모든 고투 여의자는 당부이다. 총본산에 앉아 있을 때 늘 손에는 염주를 들고 사람을 대하지 않을 때는 진언을 멈추지 않았다. 손으로는 염주를 돌리고 눈으로는 법계를 꿰뚫어 보며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는데, 진언의 공덕을 『호국국가안락인민보성다라니경』을 인용하여 이렇게 가르쳤다.

“일체 모든 국토 중에 다라니가 유포되는 그 나라의 사람들과 용들은 일체선신 옹호 받고 모든 세력 자재하며 왕자비후 재상보신 장병들이 안락하며 내외원적 모계간사 악질기근 한재수해 악수독룡 이와 같은 일체 모든 불상사는 모두 단제 소멸되고 재물 곡식 풍요하여 고장 모두 가득 차고 화과 모두 영성하여 인물들이 안락하다.”

다라니를 외는 일로 국토의 모든 이가 선신의 옹호를 받아 국민 모두 평안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행복보다 일체 중생이 행복을 얻고 고난이 사라지기를 마음에 새기며 다라니를 지송하라는 것이 대성사의 가르침이었다. 특히 관세음보살 본심묘유자대명왕진언인 ‘옴마니반메흠’의 공덕을 강조하여 남긴 글이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에 이르시되 관세음보살 본심진언을 항상 수행하는 사람은 길이 생로병사의 윤회를 받지 않는다. 만일

이 주문을 염념불망하는 사람은 천재만액이다 소멸된다.

『대승장엄보왕경』에 설함과 같이 만약 사람이 관세음보살 본심진언을 외우고 생각하면 있는 곳마다 부처와 보살을 이루며 외우고 생각하는 사람의 칠대 종족이 다 해탈함을 얻게 되며, 만약 사람이 관세음보살 본심진언을 얻으면 탐진치 삼독에 애착함이 없을 것이다.

또 이 본심진언을 머리에 이거나 몸에 지닌 자도 또한 탐진치 삼독병에 물들지 않을 것이고, 이와 같이 이거나 지니는 사람의 몸과 손으로 하는 바와 눈으로 보는 바의 일체 생명이 속히 보살의 위를 얻어 영영 생로병사 윤회하는 모든 고생을 받지 않게 된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으며,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그 본심의 진언을 외워 관세음보살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관세음보살을 드러낸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 공덕이 무량함을 밝혔다. 그리고 본심주를 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마음에 새겨 관세음보살의 본심대로 행하기 위한 마음 훈련임을 강조했다. 이는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넘어 관세음보살의 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옴마니반메흠을 송하고 염하는 것은 행하기 위한 마음 훈련이다. 옴은 회사, 마는 계행, 니는 마음을 낮추는 하심(下心), 반은 용맹, 메는 묵념, 흠은 지혜니 믿고 행하면 생로병사를 받지 아니하며 잊지 않고 묵념하면 천재만액을 소멸할 수 있다.

이 심인은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본심이라 만법을 다 가져서 법계의 진리와 우주의 만사만리가 구비하였으니 모든 경전은 등겨와 같고 육자 심인은 백미와 같아서 한 번 생각하면 착한 복을 얻게 되니 묵숨 한 번 살려준 공덕과 같고 행할 마음으로 한 번 생각하면 오역죄를 면하며 칠대 종족이 다 해탈함을 얻으며 벅속에 있는 별레 등 일체 윤택이 속히 보살의 마음을 얻으니 이것은 미묘한 본심의 공덕이요 천마외도의 사술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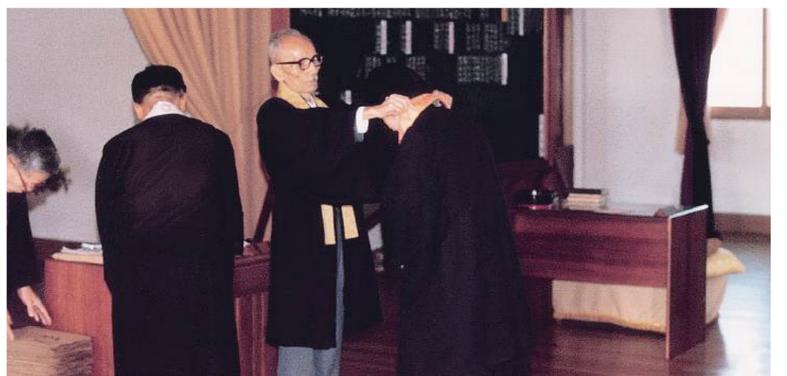


1975년 4월 23일 전법관정 수계식의 대아사리 원정 대성사

좋은 결과가 오는 유행은 제일 지혜, 제일 묵념, 제삼 용맹, 제사 하심, 제오 계행, 제육 회사이니,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여 저 언덕에 가는 것이니라.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총지종에서 실천하는 수행법은 불경에서 이르는 육바라밀행의 실천주의니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어지러운 마음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그 여섯 가지의 나쁜 마음을 고치자면, 지혜로써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치한 마음을 고치고, 묵념으로써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맹으로써 게으른 마음을 고치고, 하심으로써 열이 나고 성이 나고 분이 나는 진심을 고치고, 계행으로써 추잡한 행상과 악마 같은 행동을 고치고, 회사로써 탐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육바라밀행인 동시에 대승적 실천 불교가 된다.”

설법과 일상의 대화가 다르지 않고, 가르친 것과 실제 행한 바가 같으니 교도들이 대성사를 대하기를 때로는 친근하게 더러는



1978년 가사 봉대식

엄숙하게 했으나, 한결같은 회상은 “함께 있으면 주변이 고요해지고 남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 100명이 모여 있어도 멀리서도 대성사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종단이 자리를 잡고 전국에서 밀교 수행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대성사는 창종 이후 한국 현대 밀교 사상 최초로 삼매야계단(三昧耶戒壇)과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열어 관정식(灌頂式)을 베풀고 정통밀교를 전수할 아사리(阿闍梨)를 배출했다.

창종 만 7년, 교세는 요원의 불꽃처럼 일

어나 30여 개의 사원이 개설되고 행정기관인 통리원과 함께 교리적인 면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법장원이 신설되었다. 또한 교도들의 참여와 신행 활동을 돕기 위하여 신정회가 결성되었으며 각종 교전이 편찬되었다. 세상의 고난을 불법으로 해량하고, 이 몸 이대로 쉬이 성불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펼쳐졌다는 소식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서원당이 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와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다음 호 최종회>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세계불교 일원으로 발돋움, 종단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다

총지종의 역사

제3부 건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1995년~2010년)

03. 재가 불교종단의 위상 제고



2006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한일불교문화 교류대회'

한중일 불교문화교류대회 참석

종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일원으로 서 세계 불교계와의 교류에 나서 종단의 위상과 가치를 세계에 알렸다. 한국, 중국, 일본 불교의 오랜 전통과 우의를 계승하고 국가 간 우호 증진과 교류 협력을 통해 불교 발전과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중일 불교문화 교류대회에 참석했다. 1995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제1회 한중일 불교문화교류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참여 폭을 넓혔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한 '제3회 한중일 불교문화 교류대회'에서는 효강 법장원장이 연설을 통해 삼국의 불교 대표기구를 공식화,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교도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로 총지종의 위상을 보여주는 등 세계평화 구현을 위한 한중일 3국 불자들의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주도

한일 양국 불교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주최 한일불교문화 교류대회에 종단은 1995년 제16차 대회부터 이사 종단으로 참여했다. 1997년 한일불교 문화교류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될 때 상임이사 종단으로 등재되어 줄곧 한일불교 교류에 주도적으로 동참했다.

2001년 5월 14일 봉은사에서 개최한 제22차 대회에서 해암 총리원장은 한일불교문화 교류협의회 의회 다가시류텐 고문, 노자와 상임이사, 이찌가와 상임이사를 따로 만나 한국의 정통밀교종단인 총지종과 일본 밀교종단의 교류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다가시류텐 고문은 "일본의 밀교 종단은 한국보다 역사적으로는 늦지만, 한국과는 달리 역사 단절이 없어 밀교의 자료와 의례, 의식 등 다양한 양식이 보존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교류를 통해 밀교의 역사를 이어가자."고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2002년 대회에서 해암 총리원장을 비롯한 종단 참석자들은 밀교 의식과 의례를 상호 소개하여 여러 일본 밀교종단과 교류를 이어갔다.

특히 한국 측 상임이사로서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 증진에 공헌한 공로로 우승 총리원장은 2006년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제2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 일본 측 협회 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2014년 총리원장 범등 정사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양국 간의 불교 교류 협력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개최

세계불교의 일원으로서 한중일 불교 교류에 적극 동참한 종단은 한발 더 나아가 세계의 재가불교 지도자를 규합했다. 전 세계 재가불자들의 단결과 상호 협력을 이끄는 국제 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발의하고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2007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종단 중앙교육원이 주관하고 문화관광부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후원하는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는 미국, 유럽, 호주, 아시아 등 15개국의 재가불교 지도자가 참가하여 각국 재가불교의 현황과 가치를 공유했다. 한국의 불교문화를 알리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 지역의 불교지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통 사찰을 순례하고 정각사에서 종단의 공식 불공 법회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공연을 펼쳤다. 만해의 사상과 삶에 대한 강연에 이어 '재가불자의 위상 정립과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재가불교의 발전 방향과 재가불자의 역할을 모색하는 첫 번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종단은 2008년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서울과 월정사 등지에서 '제2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16개국 30여 명의 재가불교 지도자 및 재가불교운동 관련 학자와 승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4회 재가불자대회'

려들이 참여했다. 재가불교운동의 사상적 기반, 각국 재가불자들의 활동과 역사를 소개하여 생활불교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 자리에서 종단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승속을 초월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총지종의 사상과 신행을 소개하여 진정한 대승불교의 이념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2009년 '제3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는 '재가불교와 사회참여'를 주제로 세계 14개국 30여 명의 해외 재가불교 지도자와 학자, 승려들이 참가했다. 환경 만찬과 총지사 참배 행사에 이어 템플스테이, 생활불교 관련 세부 실천 방안 논의와 각국의 재가불교 활동 소개 및 한국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전 세계 재가불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감으로써 재가불교 종단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생활

교를 이끄는 종단의 위상을 드높이는 종단 고유의 행사로 안착시켰다.

2010년 '제4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불교'를 주제로 서울과 한국전통불교문화원 등지에서 세계 17개국 34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통 사찰과 백제문화대전 관람 등으로 한국불교를 체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불교 포교의 대안으로서 다양한 재가불교 운동론이 제시되었다. 불교 개혁 운동과 영적 성장을 목표로 창안한 스리사 아스케 교육법과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에 설립된 랩텐 센터의 신세대 포교를 비롯한 인터넷 시대 포교 철학과 방법론이 소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는 대규모 행사는 아니지만 종단이 추구하는 생활불교의 가치와 한국의 재가불교를 이끌고 있는 종단의 의의를 알리는 대회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총지사 교도 광고

혈액투석 · 줄기세포 · 암면역치료 · 자가진피주름재생술



연세숲내과

Yonsei Forest Clinic

원장 김 채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17 제이메디컬빌딩 5층
Tel. 02-496-0779 Fax. 02-496-0778



동아시아 물질 시대 신불교의 여명 금타 화상

근현대 밀교 행화의 뚜렷한 자취를 남긴 분 가운데 금타(金陀) 화상을 빼놓을 수 없다. 용성 선사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선양했고, 성철 선사의 아비라기도는 대일여래진언의 참법으로 선가에 널리 알려졌지만, 두 분 선사의 가르침이 선주밀종(禪主密從)의 선밀쌍수를 가르친 것에 반해, 금타 화상은 인도 불교의 교학과 유가를 섭렵한 선밀쌍수에 정통하였다. 청화(淸華) 스님의 회고에 따르면 금타 화상은 20세 이전 장성 백양사의 송만암(宋曼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고, 강원을 마친 후 불교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26세경 신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잠시 환속하였다가 30세 재입산하였다. 화상은 18년간 조주의 무자화도를 참구하고, 주로 내장사 벽련선원(碧蓮禪院)과 백양사 운문선원(雲門禪院)에서 정진했다. 화상은 1937년 11월 17일 39세 내장사 벽련암에서 오도하였는데, 화상의 오도송을 소개하면,

연일 동글고 뽀족한 모서리가 바로 진실이며
바람 불고 비가 뿌리는 일이 허망한 경계 아니로다
버들꽃 날리는 곳에 연꽃이 피고
송곳 끝과 거울 바닥에서 금빛이 빛나도다.

라고 하였다. 평생 칼날 같은 반야의 관조로 현실 있는 그대로 밀교의 등류법신(等流法身)의 경계로 살다간 도 높은 경지를 요약한 듯하다.

화상은 만해 스님에게 심우장 건립 비용을 보냈는데, 화상은 출가 후에도 조선의 독립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화상은 백양사 운문암으로 옮겨 학인 양성에 힘쓰다 이후 50세에 입적하였다. 화상의 입적 후 후손들은 청화 스님을 중심으로 벽산문도회를 결성해 화상의 가르침을 계승하였다. 2018년 3월에는 화상의 열반 70주년을 맞이해 백양사 부도전에 벽산당 금타 화상의 부도탑과 비를 세웠다.

『금강심론』은 금타 화상이 1942년부터 5년에 걸쳐 집필한 다수의 역작을 제자인 청화 스님이 유고를 모아 편찬한 것으로, 배광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화상의 저서인 『금강심론』에 대해 전 3권의 주해서를 완간하였다.

『금강심론』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해탈십육지료간(解脫十六地料簡)」에서 16지의 수행위차를 제시한 것인데, 화상 재세 시 인도불교의 『수습차제』나 쯩카빠의 『보리도차제론』이 알려지지 않



은 때였기 때문에 화상은 인도의 삼장과 삼학, 현밀을 한 몸에 짊어졌던 채 한국불교의 독자적 지견을 드러낸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금타 화상은 해탈십육지(解脫十六地)에 대해 보살십지를 근간으로

삼아 밀교십지, 오상성신위(五相成身位)를 지점으로 현밀(顯密)을 회통한다고 하였고, 또한 『금강정경』의 심육생성불설에 합한다 하였으니, 화상의 수행위차는 밀교를 구경의 도로 삼는 것이다. 해탈십육지 가운데 화상은 오자엄신관을 오륜관(五輪觀)이라 일컫고, 이에 대해 선무의 삼장의 『대일경소』를 인용해 설명했다. 또한 오륜관은 총관(總觀)과 별관(別觀)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 일륜(一輪)·일승을 총관하고 별관으로서 오지(五智)를 체험한다고 하였으니, 화상의 수행론은 테라바다에서 출발해 선과 유가를 거쳐 밀교를 구경의 도로 삼는 것이라 판단된다.

오상성신관의 경우 「보리방편문」 제10절 금강삼매송(金剛三昧頌)에 “적멸허공에서 망망한 검은 구름만 일다가 약간의 광명을 얻은 것을 명득정(明得定)이라 하고, 약간의 난법상(難法相)을 얻은 뒤에 심월(心月)이 현전하는 것을 애월삼매(愛月三昧)라 하는데 이것은 오상성신관에 있어 통달보리심의 경지이다”라고 하였으니, 화상은 오상성신관을 오행사상과 대비해 밝힐 뿐만 아니라 동양의학의 이론으로서 동(動)·양(痒) 등의 팔촉과 공(空)·명(明) 등의 심공덕이 있다고 하였다. 화상이 밀교를 실천한 무궁한 경지와 동양의학을 회통한 독특한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신라시대 불가사의 아사리는 말법시대에는 유상의 방편문으로부터 무상의 오도에 이른다고 하였다. 금타 화상의 문도들은 화상의 방편문 대로 오자엄신관과 오상성신관을 연구해 제대로 된 수행문을 대중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금타 화상의 방편문에 보이듯 동아시아 끝 한반도에서 미래 불교의 독자적인 체계를 세우려 했던 자비가 진흥의 진주처럼 다시 빛나길 바라 마지않는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 정성준 연구원

준제진언 염송, 고려부터 동아시아에 크게 유행

불교총지종 창종주 원정(苑淨)의 밀교사관 계승과 과제

- I. 서언
- II. 행장과 창종 이념
 - 1. 행장의 요약과 활동기 구분
 - 2. 창종 배경과 이념
- III. 밀교사관과 교판사상
 - 1. 소의경전과 교판사상
 - 2. 역사관과 준제진언
- IV. 원정사상의 계승과 과제
 - 1. 밀교사관의 계승과 발전
 - 2. 자주정신과 외계 전송
- V. 결어

2. 역사관과 준제진언

1) 『준제경』 유통과 선밀쌍수(禪密雙修)

육자대명왕진언과 함께 『대승장엄보왕경』을 전거로 삼는 또 다른 진언은 바로 준제진언이다. 본경에는 준제진언의 인연에 대해 설하지만, 지바하라 역의 『준제경』에 보다 상세한 연기를 설하고, 특히 금강지 역과 불공삼장(不空三藏) 역의 준제진언은 상세한 염송법을 설한다. 준제진언의 독송은 동아시아에 크게 유행하여 도진의 『현밀원통성불심요집』과 더불어 고려 시대부터 유행하였다.

『준제경』은 경흥(景興)이 찬술한 『삼미륵경소(三彌勒經疏)』와 둔륜(遁倫)의 『유가론기(瑜伽論記)』에 『준제경론(准提經論)』의 인용이 보이고, 조선 시대의 경우 『간독(簡牘)』, 몽은(夢隱)의 『밀교개간집(密教開刊集)』, 용허(龍虛) 편(編)의 『조상경(造像經)』에 『준제경』의 언급을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도 『준제경(准提經)』의 목판본이 다수 출간되어 조선불교 선밀쌍수(禪密雙修)의 전거가 되기도 한다. 『불조록찬송(佛祖錄贊頌)』 가운데 다음의 글을 볼 수 있다.

曹溪宗師楓巖 諱世察 姓金氏 順天人 康 二十七年戊辰十二月十六日生 乾隆三十二年丁亥七月八日寂 壽八十 贊曰 儀狀魁峴橫鳳目 信衣鉢斧傳應默 猛火聚中不燒珠 準提三昧兔山厄 - 『불조록찬송(佛祖錄贊頌)』 (ABC, H0305 v12, p.351a16-a22)

조계의 스승 풍암(楓巖)은 휘를 세찰(世察)이라 하고 성은 김씨, 순천 사람이다. 강희 27년 무진년 12월 16일 생으로 건륭 32 정해년 7월 8일 입적하였으니 세수 80이었다. 찬하길 위는 남달라 봉황의 눈을 하였고, 신의(信衣)와 개집(鉢斧)은 응묵(應默)에게 전했다. 맹화도 사리를 태우지 못했고 준제삼매에 들어 범의 액을 면했다네.

위의 내용은 풍암이 항상 준제삼매(準提三昧)를 닦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어서 선사들이 선과 밀교를 함께 닦는 선밀쌍수(禪密雙修)의 예를 보여 주는 것으로 준제주가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준제경』은 목판본으로 출간되어 선찰에 널리 유통되었다. 경종 4년(1724) 지리산 화엄사에서 출간된 내용에는 경전을 준제정업(准提淨業)이라 불렀으며 정비된 관행의례(觀行儀軌)를 갖추어 수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 청련 거사(靑蓮居士)의 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정업(淨業)은 보현행원을 닦아 구경에 이름을 말한다. 때문에 이 원으로 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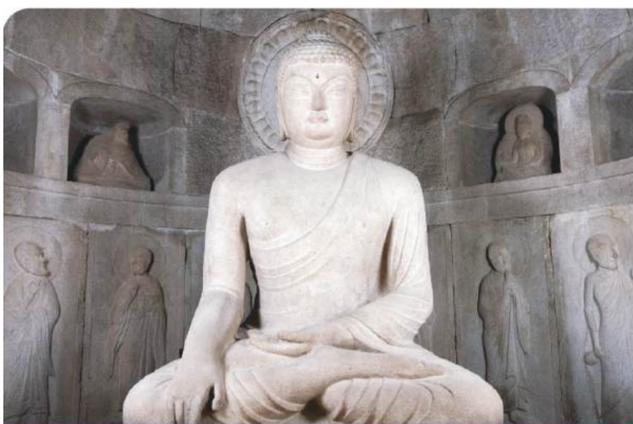
에 드는 것은 제망(帝網) 무진(無盡)의 묘관(妙觀)이며 현교와 밀교를 모두 포섭하니[顯密雙融], 비로자나가 두루 있는 곳에 아미타불이 나타나니 법신과 보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어서 준제정업은 일찍이 한 사례가 없었으니 어찌 다시 둘이 있겠는가? 현밀의 심요(心要)를 읽으면 그 심오함과 해박함에 감탄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동국대학교 불교문화유산 아카이브에서 발췌)

선찰에서 삼신(三身)과 관계된 상응의례에서도 보이지만, 선수행과 더불어 개인의 실참 원리로서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을 함께 닦은 관행으로 존재한 전거가 『준제경』에 있는 것이다. 원정은 준제진언의 전거에 대해 『대승장엄보왕경』 연구를 최초 전거로 삼았지만, 이후 『현밀성불원통심요집』의 의례를 전거로 새로이 제시했고, 이외 『준제경』을 비롯해 준제진언이 한국밀교사에 깊이 관여한 역사도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준제진언의 인연이 조선시대 선밀쌍수(禪密雙修), 혹은 선밀겸수(禪密兼修)의 근거로서 그 불교사적 위상이 동아시아에 걸쳐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성준 박사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원	정	기	념	관	선	격	정
주	부	세	시	풍	속		월
민	주	무	청	기	세	대	
	전	차			카	보	
부	부	유	별		푸	르	름
	리		만	장	일	치	
신				바	노	하	우
신	심	구	불	구	불		두
당		설	니	산	너	머	
부	지	기	수		공	책	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형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펼쳐 읽고,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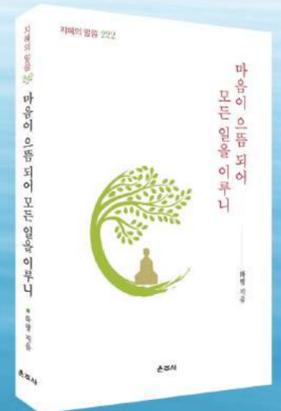
마음이 으뜸 되어 모든 일을 이루니

경전 말씀과 불교의 가르침 중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쉬운, 그렇지만 깊은 성찰과 여운을 주는 222개의 가르침을 가려뽑고 간단한 단상을 덧붙였다.

이 책은 온갖 욕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청량제 같은 가르침들은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화형 지음/사륙판/232쪽/값 12,000원

법보시 문의: 화형 정사 010-9999-0407



“소중한 동해의 인연, 언제나 응원합니다”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 제55회 졸업식 개최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 ‘2024학년도 제55회 졸업식’이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교내 해오름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2024년도 3학년 재학생 184명을 대표하여 학생회장 장수빈 군

이 송인근 학교장으로부터 졸업장을 수여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김현우 군이 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으며, 종립학교 장학생에 김준성, 이준석, 장수은, 강시후 군 등 4명이 선발되어 장학증서와 함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장학금을 받았다.

이 밖에도 학교생활에 공로가 큰 졸업생들의 시상식이 이어졌다.

재단이사장 특경 정사는 영상으로 대신한 축사를 통해 “불교에서 인연이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말한다.”며 “동해의 울타리에서 3년간 맺은 인연은 졸업생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 갈 새로운 삶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설교했다. 이어 “동해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한다.”고 합장했다.

송인근 교장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을 만나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해 뒷걸음치고 물러서지 말 것”을 당부하며, “스스로의 잠재된 힘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임을 명심하자.”고 조언했다.

또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고, 내년이 오더라도 선생님은 늘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며 졸업생들을 응원했다.

설날 아침에는 덕담(德談) 나누는 사회 만들어 보자

해마다 다가오는 설날 명절(名節)에 행해지는 풍습 중에 아름다운 풍습들이 유난히 많다. 그중 하나가 덕담(德談) 문화이다. 덕담(德談)이란, 그야말로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아름다운 고운 인사말이다. 설날 아침에 어른들께 세배를 올리고 나면 반드시 듣게 되는 것이 덕담이다.

“올 한 해 항상 건강하고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되거라.”
 “올해는 네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는 해가 되길 바란다!”
 이런 덕담은 듣는 이에게는 곧 축복의 말로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풍습이 아닐 수 없다. 설날 첫 번째 듣는 소리, 즉 덕담이 아름다워야 그해에 운수도 좋아진다고 하여 이런 덕담을 하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설날 아침에 부모님이나 어른으로부터 가슴에 와닿는 덕담으로는 ‘건강해라’, ‘부자 되거라’, ‘소원 성취해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라’, ‘올해는 꼭 승진해라’, ‘형제간 우애 있게 지내거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설날 아침에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해주는 덕담으로는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라’,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형제간에 사이 좋게 지내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의롭게 해라’ 등을 들 수 있다.

덕담(德談)은 설날 아침에 상대방에게 신뢰와 칭찬,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뜻임과 동시에 자신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라는 깊은 뜻도 함께 담겨 있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은 바로 나에게도 듣기 좋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질도 함께 달라진다. ‘년 할 수 있어’, ‘올해는 잘될 거야’, ‘힘내!’ 등 덕담으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듯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은 너와 나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동시에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덕담은 서로 복을 빌어주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새해 인사로 쓰고 있지만, 상대방이 평소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더 특별한 덕담을 해 줄 수 있어 좋을 듯하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에 정치가였던 관중(管仲)의 『관자(管子)』에는 이런 덕담이 있다.

“1년을 계획하거든 벼를 뿌리고, 10년을 계획하거든 나무를 심고, 평생을 계획하거든 사람들을 교육하라.

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百年之計 莫如樹人”

올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덕담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 모든 국민이 건강을 누리고 복된 한 해를 기원하는 개인적 덕담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그런 새해 원담(元旦)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2025년 을사년 새해 설날은 다른 해와는 달리 안타까움과 걱정이 상존하는 설날인 만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사뭇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다 함께 간절히 기원해 본다. 꿈과 희망이 있는 새해,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맞이하는 새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새해, 믿음으로 사는 새해, 사랑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기를 말이다. 꿈과 희망을 품고, 불퇴전의 용기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5분 실천 명상 입문서

BOOK 소리

하루 5분 생활 명상
스스로 치유하는 깨달음의 힘

박희승 지음 | 135×200mm | 180쪽
값 1만 8000원 | 중앙books
발행일 2024년 11월 30일

하루 단 5분만으로도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책은 30여 년 동안 마음공부를 이어가며 명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가 일상 생활의 번뇌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 명상’의 개념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저자는 ‘하루 5분 생활 명상’은 하루 1,440분 중에서 딱 5분 만으로도 가능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일상에도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한다. 평소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심한 현대인을 위한 5분 호흡 명상, 5분 숫자 세기 명상, 5분 경청 명상, 5분 샤워 명상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시간을 내서 5분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만나볼 수 있는 명상 입문서다.

화령 정사의 담배바다 돌아보기

진리의 행복

진리를 즐기는 이는 언제나 행복하다
 현자는 성인이 가르친 진리 속에서
 언제나 즐겁게 안락함을 누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은 언제나 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어긋나게 말하며 어긋난 마음을 먹기 때문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진리에 바탕을 둔 삶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어려운 일이 없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하면 집안에 평화가 깃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닦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깨어 있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면 마음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한 힘으로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입니다. 불행도 행복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결국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결같은 부지런함으로 항상 깨어서 스스로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h2>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h2> <h1>후원에 감사합니다</h1> <p>12월 21일 ~ 1월 20일까지</p> <p>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p> <h3>후원금 납부방법</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p>●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p> <p>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p>	개천사	한영란	12/24	1,000,000	단향사	지홍	12/29	2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이태윤	12/25	10,000	총지사	록경	1/2	20,000	
	관성사	법선	12/23	10,000	단향사	이수형	12/29	20,000		박현정	12/25	20,000		총지사	김정환	1/8	10,000
		김평석	1/19	10,000		동해사	김진화	1/20		10,000	신찬호	12/26			10,000	유은혁	1/8
	국광사	진여	1/20	10,000	동해사		송인근	1/20	10,000	나석원	12/26	50,000		총지사	정연경	1/8	10,000
		공덕성	12/23	20,000		만보사	승원	12/23	10,000	김경희	12/26	30,000			백귀김	1/10	10,000
	수증원		12/23	10,000	만보사		묘원화	12/23	10,000	해광	1/6	10,000		최영아	1/10	10,000	
	밀공정	12/23	10,000	만보사		강명순	1/3	10,000	이순영	1/7	20,000	최지아		1/10	10,000		
	법지원	12/23	10,000		만보사	최옥순	1/9	10,000	실지사	황성녀	12/31	10,000		신현태	1/19	10,000	
	일성혜	12/23	10,000	만보사		이종구	1/13	7,000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12/26	80,000		강동화	12/30	10,000	
	사홍화	12/23	10,000		만보사	김정희	1/20	10,000	양지동제1복지회관	서영주	12/27	10,000		무명씨	12/31	10,000	
	안주화	12/23	10,000	만보사		박길선	1/10	1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12/27	80,000		홍춘자	1/1	10,000	
	진일심	12/23	10,000		만보사	덕광	1/10	20,000	운천사	우인	12/23	10,000		박대성	1/1	10,000	
	기로스승	시각화	12/23	10,000		법성사	남해	12/23	10,000	운천사	반야화	1/9		30,000	박대영	1/1	10,000
		최상관	12/23	10,000	법성사		장정숙	1/20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12/26		80,000	무명씨	1/2	10,000
	연등원	12/23	10,000	법성사		신말심	1/20	10,000	일원어린이집		연명구	1/2		20,000	행원심	1/14	10,000
자선화	12/23	10,000	법천사		반야심	12/31	10,000	자석사		유재영	1/8	10,000	이은별	1/14	10,000		
승효제	12/23	10,000		법천사	인선	12/23	10,000		자석사	도우	1/13	10,000	송영근	1/16	10,000		
주신제	12/23	10,000	법황사		정계월	12/23	10,000	자석사		지현	1/13	10,000	송호영	1/16	10,000		
총지화	12/23	10,000		법황사	박미경	12/26	10,000		정각사	김선희	12/26	80,000	송하나	1/16	10,000		
법계월	1/2	100,000	법황사		이민선	1/2	80,000	정각사		안한수	1/5	10,000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1/10	80,000	
지공.지희심	1/17	500,000		법황사	하명순	12/26	10,000		정각사	노점호	1/17	10,000		*포항 대련리 후원금	운천사	우인	1/20
남산초등학교	엄미선	1/7	10,000		법황사	무명씨	12/31	10,000		정각사							
단음사	이규성	1/15	10,000	법황사		박필남	1/16	10,000	정각사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26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

생태계 방생은 불살생계 실천

만약 저 사람이 계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인 줄 알면, 비록 관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물을 얻었을 때 마시면 범함(犯)이 없다. 한 번 본 물은 모두 해가 뜰 때부터 아직 동이 뜨지 않을 때까지 사용한다. 만약 물을 취할 때, 손으로 거르는 망을 오래 잡고 있어 사람이 피곤하면 마땅히 세 가닥 난 다리를 세워 망을 버티어서 양뿔을 묶어야 하고 만약 물이 쏟아져 그치지 않아 벌레가 많이 죽을까 염려되면 마땅히 망 가운데 모래를 놓거나 쇠뿔가루로 받쳐 머물게 하여야 한다.

사기 주발이나 동(銅) 주발을 만들어 테두리에 구멍 세 개를 뚫어 각각 사슬로 꿰어 세 개의 장대에 묶어 놓고, 그물 거르는 망의 한 모서리를 그릇 안에 놓고 아래는 동이를 놓아 그 물을 받는다. 동이 속의 벌레를 보는 것은 반드시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만약 물을 볼 때 벌레가 작아 보기 어려우면 마땅히 풀줄기로 가리켜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면 안 된다.

물 받는 것이 이미 끝났으면 망을 그릇 속에 넣고, 만약 강이나 연못이 가까우면 그곳에 가서 기울여 쏜다. 반드시 들에 있어야 할 때는 우물에 버리되, 빈 망을 때달아 우물 위에서 뒤집어 벌레가 쫓겨 나가거나 산 것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방생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하니, 작은 두레박을 만들어 위아래에 각각 양 코를 만들어 두 줄로 묶어서 망을 이 가운데서 뒤집고 깨끗한 물을 부어 걸러서 은근히 관찰하여 벌레가 없는 줄 안 다음에 두레박을 우물 속에 담가 밑을 뒤집어 잡아당기기를 두세 번 하여 벌레가 망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그런 뒤에 반드시 깨끗이 하여 벌에 쏘여 말린다.

- 『근본살바다부율집』 11권(ABC, K0934 v24, p.97b01)

불자가 받은 오계의 첫 번째는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불살생(不殺生)이다. 불살생을 위해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물을 얻을 때, 마실 때, 버릴 때 매 순간 잘 살피고 조심해서 작은 생명 하나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발우공양에서 그대로 전해진다. 발우공양에서는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사를 마친 발우에 청수물을 부어 씻어서 마셔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음식을 감사히 받고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음식물 찌꺼기가 식물이나 동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동안거 기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 하안거와 동안거를 하지만, 처음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안거를 시작한 이유는 우기에 길에 지렁이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걸어 다닐 때 이런 동물들을 헤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스님들이 지팡이에 방울을 달고 다니는 경우도 방울 소리에 작은 동물들이 피하도록 해서 동물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작은 풀 한 포기도 밟지 않으려고 하고 함부로 꺾지 않았다.

오늘날 코에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든 채 죽은 고래와 알바트로스, 로드킬로 희생당한 동물들, 농약으로 인해 사라져간 동물들, 또한 각종 산업과 생활쓰레기로 인해 오염된 공기와 물과 토양은 그곳에 깃들여 사는 못 생명을 병들게 하였고, 각종 개발로 인해 서식지를 잃고 개체 수 감소로 멸종위기에 이른 야생동식물을 생각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희생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따라서 불살생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죽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삼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분리배출을 잘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곧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고 불살생계를 지키는 일이다. 또한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도 불살생계를 지키는 일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불살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잡혀있는 동물을 풀어주는 방생이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배스나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외래종을 방생하여 생태계를 교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불교환경연대는 철새 먹이 주거나 나무 심기 등 새로운 형태의 방생을 생태 방생이라 이름하여 새로운 방생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불살생을 지키는 일이자 방생이라는 의미로 생태계 보존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거나 환경단체를 후원하는 것도 불살생을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초기불교에 스님들이 방생하는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마실 때에도 작은 생명 하나라도 해치지 않으려 노력했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도 일상에서 다른 생명의 소중함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고려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야생동물이 다니는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땅을 살리는 유기농 농산물을 구매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장바구니, 텀블러를 지참하는 불편을 기꺼이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남해 정사의 워드다르마 With Dharma

인도성지순례기 - ② 전도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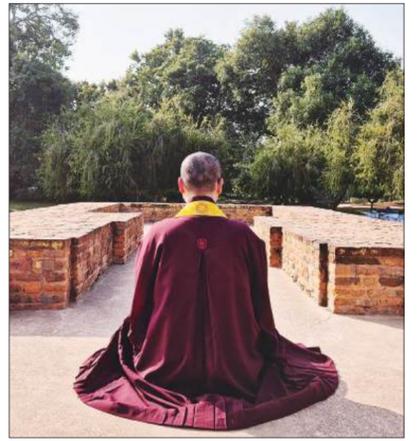
둘째 날, 사르나트로 향했다. 사르나트는 부처님께서 콘단냐(Kondanna: 憍蓮如), 아사지(Assaji: 阿說示), 마하나마(Mahanama: 摩訶男), 밧디아(Bhaddhiya: 婆提), 바파(Vappa: 婆頗)에게 처음으로 설법하셨던 곳이다. 부처님께서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으신 연기의 이론이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이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하는 것을 주저하셨다. 이에 범천이 그 마음을 알고 급히 부처님 앞에 나타나 설법을 권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셨다. '못 속에는 온갖 빛깔의 연꽃이 핀다. 아직 흙탕물 속에 잠겨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수면 위에 고개를 들고 아름답게 피어 있다. 진흙 속에서 나왔으면서도 그것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채 아주 맑은 꽃을 피운다.' 그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각색임을 관찰하신 부처님께서 마침내 설법을 결심하셨다.

첫 설법의 대상으로 생각한 스승인 알라라 갈라마와 우다가 라마뻬다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함께 고행했던 다섯 비구에게 설법하기 위해 그들이 있는 사르나트로 향하셨다. 보드가야에서 사르나트까지는 250km의 거리이다. 공양에서 사르나트로 가는 버스 안에서 '부처님께서 그 먼 길을 맨발로 걸으시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나는 설법을 위해 250km를 맨발로 걸어야 할 수 있을까? 전도의 길이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

조선법륜자인 사르나트에 도착하여 차우칸디 스투파(영불탑)로 향하였다. 차우칸디 스투파는 부처님이 다섯 비구를 재회한 것을 기념하여 굽타왕조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에는 높이가 300여 척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한다. 팔각기둥 형태로 올려진 현재 건물은 1588년 무굴 제국의 악바르 황제가 부왕 후마윤의 방문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라 한다.

다섯 비구를 만난 부처님께서 두 사람이 탁발하면 세 사람에게, 세 사람이 탁발하면 두 사람에게 설법하셨다. 부처님과 다섯 비구는 탁발로 가져온 공양을 함께 나눠 드셨다. 이렇게 설법하여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콘단냐였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콘단냐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콘단냐는 깨달았다. 콘단냐는 깨



사진=남해 정사

달았다."하시며 기뻐하셨다고 한다. 그 이후 콘단냐는 '깨달은 콘단냐'로 불리게 되었다.

차우칸디 스투파 참배와 탐돌이를 마치고 드디어 사르나트로 향하였다. 사르나트는 전생에 사슴이었던 부처님이 무리 중 새끼를 뺀 암사슴을 대신해 죽으려 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왕이 사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녹야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현장 스님이 640년경에 사르나트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 1500명의 스님이 있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한다.

사르나트에는 다르마라지카 스투파와 다메크 스투파가 있다. 다르마라지카 스투파는 아소카왕이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하지만 1794년 힌두교도였던 바라나시의 왕이 탑을 파괴하여 지금은 원형 기단만 남아있다. 다메크 스투파는 '진리를 보는 탑'이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두 번째 설법을 한 장소에 세운 높이 43m, 기단 직경 28m에 이르는 거대하고 웅장한 탑이다.

사르나트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안거하셨던 곳이다. 부처님께서 안거하셨던 곳에 예배했다. 향을 사르고 함께 『반야심경』을 독송한 후 아소가 석주가 있던 곳으로 갔다. 석주는 대부분 파괴되어 하단만 남아 있었으며 석주의 사자상은 사르나트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방문했던 날이 마침 휴관일이라 사자상은 아쉽게도 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다메크 스투파에 참배하고 탐돌이를 했다. 탐돌이를 마친 뒤 호텔에서 저녁 공양을 하고 갠지스강으로 향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지난 한 해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과

위드다르마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금은 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장학사업 등 사회 그늘진 곳에 자비의 손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드다르마는 매월 불자와 일반인을 비롯해 군, 교도소 등으로 보내져 교화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정성 잊지 않고 용맹정진하겠습니다.

김종필 김진화 김평석 나석원 남해 노점호 덕광 도우 록경 만보사 묘심해 묘원화 묘홍 무명씨 밀공정 박길선 박대성 박대영 박미경 박성호 박송희 박옥자 박필남 박현정 반야심 반야화 제석사 백귀임 故법계월 법등 법상 법상인 법선 범우 법지원 보명심 사홍화 수인사 삼사순례단 서영주 석나윤 선도원 성치린 영식 손한샘 송영근 송인근 송하나 송호영 수증원 승원 승효제 故시각화 신막심 신선미 성화사 신정희 신찬호 신현태 안선민 안용준 안재석 안주화 안한수 연등원 연명구 연명구 오선혜 총지사 우인 원당 유선호 유승우 유승태 유은혁 유지영 유지호 이경호 이규성 이도현 이루나 이민선 이상채 이서현 이성미 이수형 이순영 이순옥 이은별 이은정 이정남 이종구 이진승 이태윤 이훈강 인선 인지심 일성혜 자선화 장태관 적민 정계월 정동숙 정서호 정석만 정우석 정윤영 정정희 제석사 조성기 주신제 지공 지명 지현 지홍 지회심 진금선 진여 진일심 총지화 최상관 최영아 최옥순 탁상달 하명순 하재희 한영란 해정 행원심 혜광 홍도열 홍춘자 황성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자 이상 가나다 순>

강영철 공덕성 김갑태 김상길 김석한 김영옥 김윤서 김인규 김일랑 김정순 김진문 김행숙 남해 박봉수 박영구 박영중 박정미 박종한 박차봉 박태수 배여진 법공 범우 보명심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서금순 서순옥 성화사 신정희 안한수 여성숙 우인 유선호 유지호 유채꽃 윤종일 이금숙 이정식 성화사 신정희 옥장윤 윤병재 이수영 이인성 이재길 이해성 인지심 자선화 장승재 전제우 정건호 정봉채 조덕제 조장현 조현숙 주건우 정휴영 정희련 진여 최금란 총지화 최우성 한미영 한철수 황규철

<위드다르마 후원 이상 가나다 순>

